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의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97호 현대불교
2008년 9월 17일(음력 8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그냥 주인공에 다 뇌버리시고 편하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나는 이날까지 거짓말까지 해서 중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차원이 높아지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름을 가지려고도 안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내 아픈 아님이 없는 까닭에 하는 것이지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름이 빛나거나 이름이 높아질 걸 바라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걸 잘 먹고 입을 걸 잘 입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면 뭘 하겠습니까? 그 죄는 어디서 받고요. 또 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내가 그렇게 다 받더라도 여러분만 잘 살 수 있다면, 틀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틀에서 사는 생명들이나 여러분이 모두 다 평화롭게, 그러한 고생 없이 살 수 있는 상세계로만 된다면 나는 아무 흔적도 없는 가루가 돼서... 난 그렇게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반야졸이라도 쥐고, '내 자부처가 나한테 있다' 하고 쥐고 나가지만 하셔서 그거는 반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주 기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말들을 했으니까 오늘 질문해 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으니까요.

질문자1(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진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2, 3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네 번이 났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번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많이 상했는데 제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스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위에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너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일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면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제가 관(觀)했었습니다. '주인공, 이거 바퀴가 매우 미끄러운데 절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이끌고 가라'고 관한 지 한 5분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많이 상했는데요, 마음을 그렇게 돌렸습니다. '아, 그래,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지만 왠지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고가 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림 · 최주현

금요일날 진주에서 법회를 보고 선원에서 나오다가 인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술 먹으신 분이 그냥 갑자기 차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리를 약간 다치셨는데 병원에 가서 X-RAY 찍고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관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안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사고가 나아지지만 나하고의 그 인연이 해결이 되니까 더 잘되기 위해서 사고가 난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스님께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스님 아까 삼점 하는 얘기 했죠. 본인이 사고가 난다 안 난다는 떠나서 '너만이 사고 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항상 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야지, 사고가 닥치고 애길 하면 벌써 이미 차는 지나가. 그래서 아침마다 관하고 타라. 또 저녁에 내릴 때 감사하게 관해라. 그 차도 생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 차도 들어요. 차도 듣고 안의 주인공도 들고 말이예요. 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자부처는 자기를 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 보세요. 그 질문이 아니라 다른 것도요. 그럼 알게 돼요.

질문자1(남) 그런데 스님, 그저께 난 사고도, 제가 밤눈이 좀 어둡기 때문에 밤에 운전을 잘 안 하

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앞이 잘 안 보여 갖고 '아, 이상하다.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참, 주인공 잘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스님 그것을 한번...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내가 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마음이 열릴때까지 약해지거나 이런다면 안 되죠. 자기 뿌리와 자기 짝인데 어찌 된다고 해서만 믿고, 안 되면 안 믿겠습니까? 진짜로 믿어야죠. 그래 이거 공부하는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질문자1(남)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스님 그림, 자꾸 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라, 또 당신으로 인해서 남이 다치거나 또 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하더라도 죄 없이 맞은 때는 빨리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려 내가 맞았으면 '저 사람 수고를 시켜서 나를 사람 되라고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면 좋을 거예요.

질문자2(남) 예, 저는 인양 본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님 말씀과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스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스님을 친견하고 싶어서 무척 안달복달했었는데 제가 오만해지는 건지, 아니면 신심이 약해지는 건지, 아니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스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요즘은 뭐 굳이 스님을 친견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연찮게 아주 영광된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스님께서는 현세에서 '고'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코 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비(慈悲)라는 그 한자를 풀어 보면 자는 바로 '사랑 자(慈)'이고 비는 '슬플 비(悲)'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바로 자애로움만 갖고는, 물론 저도 깨치지 못한 중생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애로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끔할 정도의 어떤 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악감정이 없이 비록 중생에게는 당시에 그게 고통일지라도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되 힘이 없는 그 비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얼마나, 또 시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시간 정도 그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끝없이 끝없이, 힘이 없이 모두 하고들 가십니다. 이걸 현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하고 가고 있어요. 힘이 없이 하고들 가세요. 보는 사이도 없다. 보는 사이 없이 봤다. 금방 넘어가니까, 탄 거 봐야 하나. 들은 사이 없이 또 탄 걸 듣는다 이럴 땐 힘이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이 무슨, 지속된다 지속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 돌아서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26면으로 계속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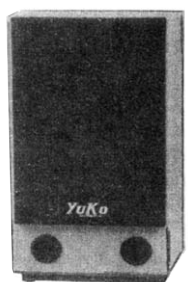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연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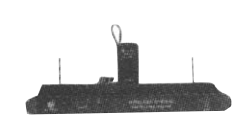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식발염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 불교 각단체 및 천도제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2. 사물다루는법 3. 천수바라 4. 사다라니바라 5. 오공양작법 6. 요장
● 불교의식수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필기도구, 녹음기



- 월 10만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현스님



-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